



## 박 준 영

(한협총계장 대표)

엇그제 생활 필수품의 價格이 7%에서 무려 40%의기습 인상과 더불어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는 실정에 온 국민은 뒷통수를 얻어 맞은양 어리둥절한 상태에 우리 양계업은 가격인상은 커녕 생산비 이하로 하락되는, 기막힌 현실에 업을 도산 하여야 하는 진퇴 양난의 갈림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육류의 수입등 정책적인 원인이 크겠지만, 이러한 업계현황을, 우리 양계인 스스로의 책임으로 보고 지난날과 오늘의 현실과 앞으로의 업계 변천 과정을검토하여 개선점을 모색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될 시기가 아닌가 봅니다.

과거 10여년간 호황과 불황의 반복에서도 양계업은 기업화, 기술화, 전문화되는 꾸준한 성장을 하여 온것만은 사실이나 아직도 수급조절, 유통과정, 사료의 품질, 질병문제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채란업은 자기소유의 토지에다 영구계사로, 전업 또는 기업양계로, 비교적 안정 기반이 조성 되었고, 유통체제도 확립 되었다고 보나 계란가격의 안정이나 가공식품으로 발전을 하여야 할 여지는 많습니다.

급증되는 육류소비로 밝은 전망의 육계업이 심한타격을 받고 있는것은, 영세성을 탈피못하고 항시 경기의 굴곡이 심한 상태에서 과다 경쟁으로 업자간의 불신풍조가 싹트고 있기 때문이므로 생산조절, 가격조절, 유통과정, 소비촉진등 자신의 이해 관계를 떠나 사명감을 가지고, 혼연일체로 단합하여 나가야만, 안정된업으로 꾸준한 발전이 오리라

봅니다. 생산조절 면에서, 업내외적인 문제점으로, 업자 스스로의 해결 방안으로는 원종농장에서 종계수수의 조절 이라고 생각합니다. '68년도 에서 '73년도 까지의 무제한 외국계 도입으로 인한 생산과잉은, 업계가 도산직전의 대불황을 초래케하여, 정부당국에서 도입을 금지 함으로서, 이후 4년간 유사 이래 볼수없는 호황을 누린 것입니다. '76년도 "순계"라는 명목하에 도입이 허용되고, 작금은 무제한의, "G. P. S." 와 "P. S" 도입이 허용된 상태하에서, 종계과잉이 업계 전체의 불황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

각 합니다.

다음 단계로서, 부화장의 입란조절과 사육업자의 입추조절입니다. 군소 부화장을 포함하여 허가된 부화장이 300여 개소로, 부화능력이 무려 2,500만개로 난립된 부화업은, 3개 농장의 부화능력이 600만개 이상으로 전체의 25%를 점유하는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반여건이 구비된 상태에서 대형화는 바람직하지만 독점을 위한 대형화란, 대군업자와 중소기업자간의 대결로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업자만 골탕을 먹게 마련입니다.

병아리 판매가 곤란하면 입란수를 조절하고, 입추를 조절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치열한 경쟁은 서로가 합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조절은, 수요와 공급 상호관계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당연한 원칙입니다.

초생추 가격이나 육계가격의 주도권은 생산업자와 판매업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승세 에서는 생산업자가, 하락시는 판매업자가 주도하게 되므로, 상호 협의하에 초생추의 협정가격 제도가 바람직 하고, 육계의 비축제도가 확립되어 가격의 하한선과 상한선의 가격 안정대를 설정하여, 적정가격 에서 하락시 수매하고, 상한선이 될때 방출하는 제도가 바람직 하지만, 이 제도는 수급조절이 가능할시에 효과를 거둘수 있으리라봅니다.

유통과정과 소비촉진 문제에서 보면, 계육의 소비층은 대중소비로서 소비층이 두텁다고 볼수 있습니다. 판매의 루트가 단일화될수록 판매업자의 적정 이윤이 보장되고 판매가격의 고정화는현금 판매로서 위험부담을 줄이고, 판매의 다양화가 이루어 지리라 봅니다. 가격의 진폭은 소비를 위축 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 육의 판매로서 적은돈으로 구입을 가능케 하고, 가공판매로서, 대중 소비에 저변확대를 하여야 될 시기 인것 같습니다. 우리 업자에게 가장 중요한것은 원가절감입니다. 원가절감을 위하여 생산 계열화가 이루어 진다면 육계업은 안정기반 하에서 확실히 성장 되리라 봅니다. 생산 계열화란, 전문화, 분업화된 협업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마케팅 할수있는 수수에 따라, 모든 규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일 1만수의 육계를 팔수 있다면 1만수 규모의 도계장이 설치되고, 종계수수, 부화장의 능력, 사육자의 규모, 반드시“올인”“올아 1우트”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사료공장의 규모가 결정되고, 각 분야별로 맡은바 책임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外的인 문제로서, 사료물량의 조절로서 생산량의 억제 방안 보다는, 사전 종계등록의 철저 입니다. 업계는 불행하게도 주도 하여야할 대군업자는 종계등록을 철저히 안하고, 군소업자는, 비교적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종계등록을 필하지 않으면 행정조치를 취할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전업자를 위하여 법적제재를 가함으로서, 종계수수가 확인되고, 통계수치에 의한 조절이 가능 하리라 봅니다.